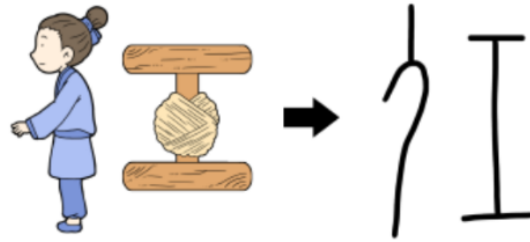


5(2)  
-  
71

회의문자 ①



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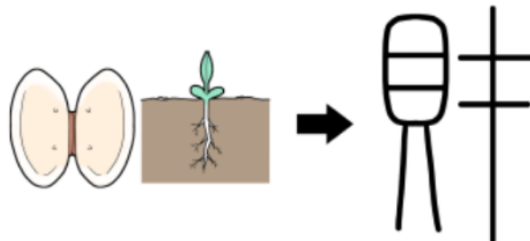
맡길 임

任자는 '맡기다'나 '(책임)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任자는 人(사람 인)자와 𠂔(천간 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𠂔자는 실을 묶어 보관하던 도구를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모양자 역할로 쓰였다.任자의 갑골문을 보면 마치 사람이 등에 𠂔자를 짊어지고 있는 듯한 𠂔I 모습이다.任자는 이렇게 등에 무언가를 짊어진 모습에서 '맡기다'나 '맡다'라는 뜻을 표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任자는 주로 어떠한 직책을 '맡고 있다'나 '부담'이나 '짐'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5(2)  
-  
72

회의문자 ①



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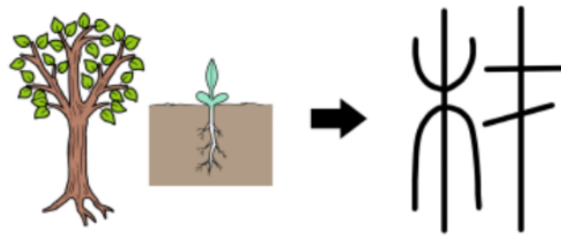
재물 재

財자는 '재물'이나 '재산', '재능'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財자는 貝(조개 패)자와 才(재주 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才자는 땅 위로 올라오는 새싹을 그린 것으로 '재능'이나 '재주'라는 뜻을 갖고 있다.財자는 '재물'을 뜻하기 위해 貝자가 의미요소로 쓰였다.그런데 고대에는 財자나 才자 모두 '재능'이라는 뜻으로 사용됐었다.그러나 후에 才자는 선천적인 재능을 뜻하게 되었고 財자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얻게 된 '재물'이라는 뜻으로 분리되었다.

소전	해서

5(2)  
-  
73

회의문자 ㉠



材

재목 재

材자는 '재목'이나 '재료', '재능'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材자는 木(나무 목)자와 才(재주 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才자는 땅 위로 올라오는 새싹을 그린 것으로 '재능'이나 '재주'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재능'을 뜻하는 才자에 木자가 더해진 材자는 상태나 재질이 좋은 나무라는 뜻이다. 材자는 나무의 '재목'이나 '재료'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사람에 비유할 때는 '재능'이나 '재주', '수완'과 같이 사람의 자질과 관련된 뜻을 갖는다.

材

소전

材

해서

5(2)  
-  
74

형성문자 ㉠



的

과녁 적

的자는 '과녁'이나 '목표', '분명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的자는 白(흰 백)자와 勺(구기 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勺자는 물을 푸는 용도인 '구기'를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작→적'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그런데 的자의 소전을 보면 白자가 아닌 日(날 일)자가 쓰여 있었다. 태양은 세상을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的자의 본래 의미는 '분명하다'나 '선명하다'였다. 날이 좋으면 목표가 잘 보였기 때문일까? 的자는 후에 '과녁'이라는 뜻이 파생되면서 지금은 '목표'나 '표준'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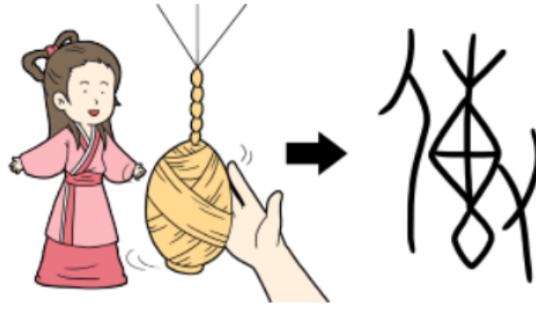
소전

的

해서

5(2)  
-  
75

회의문자 ㉠



傳

전할 전

傳자는 '전하다'나 '전해 내려오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傳자는 人(사람 인)자와 專(오로지 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專자는 방추(紡錘)에 감긴 실을 돌리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방추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專자에 人자가 결합한 傳자는 마치 무언가를 전해주는 듯한 傳 모습이다. 그래서 傳자는 물건을 전해준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참고로 고대에는 각 지역마다 역참(驛站)을 두어 급한 전보를 도성(都城)까지 전달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전에는 傳자가 소식을 전달하던 마차나 말을 뜻했다.

傳

갑골문

傳

금문

傳

소전

傳

해서

5(2)  
-  
76

회의문자 ㉠



典

법 전

典자는 '법'이나 '법전', '경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典자는 冊(책 책)자와 升(받들 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冊자는 죽간을 엮어 만든 '책'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죽간을 엮어 만든 책을 그린 冊자에 升자가 더해진 것은 책을 받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책을 양손으로 받들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책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典자는 매우 중요한 책이라는 의미에서 '서적'이나 '법전', '법', '의식'을 뜻하게 되었다.

典

갑골문

典

금문

典

소전

典

해서

회의문자 ⓘ

5(2)  
-  
77



展

펼 전

展자는 '퍼다'나 '늘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展자는 尸(주검 시)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주검'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갑골문에서는 단순히 4개의 工(장인 공)자만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쓰이지 않는 𡗗(펼 전)자이다. 이것은 구운 도기를 늘어놓은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갑골문에서는 𡗗자가 '펼치다'나 '살피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여기에 衣(옷 의)자와 尸자가 더해지면서 '(사람의)옷을 펼치다'라는 뜻을 표현하게 되었다. 지금의 展자는 이러한 글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의미 역시 단순히 '펼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𡗗

갑골문

𡗗

소전

展

해서

상형문자 ⓘ

5(2)  
-  
78



節

마디 절

節자는 '마디'나 '관절', '예절'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節자는 竹(대나무 죽)자와 卩(곧 죽)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卩자는 식기를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으로 '곧'이나 '즉시'라는 뜻이 있다. 그러나 갑골문에 나온 節자를 보면 단순히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卩(병부 절)자이다. 卩자는 금문에서부터 竹(대나무 죽)자와 卩(곧 죽)자가 결합한 형태가 되어 대나무의 마디를 뜻하게 되었다.

卩

갑골문

卩

금문

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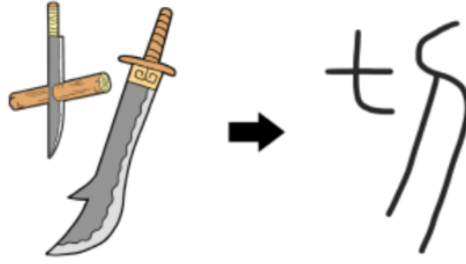
소전

節

해서

5(2)  
-  
79

회의문자 ⓘ



切

끊을 절  
| 온통 체

切자는 '끊다'나 '베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切자는 七(일곱 칠)자와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七자는 숫자 7이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갑골문과 금문에서는 '자르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七자의 갑골문을 보면 十자 모양이 十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긴 막대기를 칼로 내리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고대에는 七자가 '자르다'라는 뜻으로 쓰였었지만, 후에 숫자 '7'로 가차(假借)되면서 소전에서는 여기에 刀자를 더한 切자가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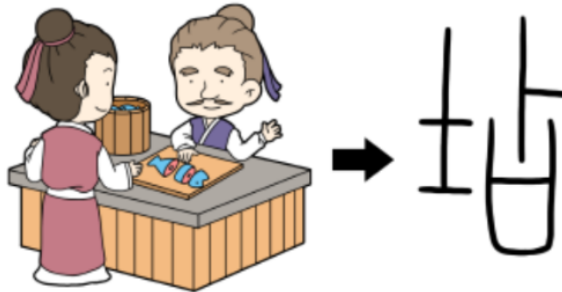
소전

切

해서

5(2)  
-  
80

회의문자 ⓘ



店

가게 점

店자는 '가게'나 '상점'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店자는 广(집 엄)자와 占(차지할 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占자는 점을 쳐서 묻는다는 뜻으로 '점치다'나 '차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차지하다'라는 뜻을 가진 占자에 广자가 결합한 店자는 시장 한쪽 부분을 차지한 집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사실 소전까지만 하더라도 土(흙 토)자가 들어간 站(경계 점)자가 '가게'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站자는 토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상점'이나 '가게'를 뜻했지만, 해서에서부터는 店자가 뜻을 대신하고 있다.

站

소전

店

해서